

## 이스라엘 성벽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동부사랑의교회, 24시간 52일간 중보기도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동부사랑의교회 성도들이 24시간 동안, 52일간 기도한다. 기도시간으로만 따지더라도 1천2백시간이 훌쩍 넘는다. 이 시간동안 성도들은 교회 내에 마련된 기도실에서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릴레이 기도를 펼친다. 400명의 기도자들이 1시간 단위로 나누어 기도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토요일과 주일은 유스그룹, 유아부 등 교육부서가 연합으로 그 시간을 삼킨다.

교회 측은 "미국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보며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 기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24시간 기도를 통해, 누군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다"고 말했다.

10월 16일 주일 오후 7시 예배를 시작으로 24시간 52일간의 느헤미야 기도회가 시작됐다(사진). 개회예

배에서 담임 박승규 목사는 "52일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 기간동안 잠들지 않는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 서자"고 강조했다.

이번 기도회의 핵심은 중보기도다. 교회 측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전 건축 등 교회 입장에서도 절박한 주제가 많지만 이번 기도회동안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닌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완성, 미국의 회복, 조국의 발전과 이민교회의 부흥 등이

주요 주제이며 한 관계자는 "이 기도운동이 아주사 대부흥처럼 남가주 전 지역과 미주 전역에 퍼지길 소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도회의 대막을 알리는 예배에는 무려 3백여명 성도가 참석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인규 기자



## 한국교회 최대 장점이 최대 약점 되어 버렸다

통곡기도회에서  
대각성기도회까지  
기도로 세상 깨울 때



베델한국교회 손인식 목사

전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인권도 신앙도 말살되어 버린 땅, 기아와 살육이 난무한 땅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한. 누구도 답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북한 문제를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미주 주류사회,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등장시킨 주인공은 바로 2004년부터 시작된 통곡기도회였다.

주제 그대로 기도회였지만 이 기도회는 그동안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고,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됐고, 행동하는 자리가 됐다. 미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한국으로 번졌고 전세계로 뻗어 나갔다.

이 기도운동의 주창자였던 손인식 목사를 그가 21년째 시무하는 베델한국교회(얼바인 소재)에서 만났다. 1990년 부임 당시 장년 2백명, 2세 2백명이었던 교회는 1년만에 1천명으로 부흥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5천명 규모의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이 교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동안 대각성기도회를 개최했다.

매일 밤 진행된 이 기도운동 참석자들은 성도 개개인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 미국과 중국, 북한과 세계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별 다른 홍보없이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1천5백명 이상을 돌파해 마지막 날에는 2천8백명이 넘는 성도가 기도하는 등 열풍으로 번졌다.

이 기도운동은 베델한국교회의 40일로 끝나지 않았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대각성기도회 확산 컨퍼런스를 열고 베델한국교회에서 시작된 이 기도운동을 전 미주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곧 전 미주 25개 교협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각성기도회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2면에 계속)

## 한인교계, 백악관에 "기독교 정신 회복" 요청

남가주 한인교계 지도자들이 13일 백악관을 방문해, 각 부서 별 종교 정책 담당자와 만나 한인교회와의 협력 사항을 건의, 긍정적 답변을 전해들었다. 이날 오전 11시 기독교 브리핑을 가진 교계 지도자들은 국무부, 노동부 등에서 나온 13명의 종교담당자들과 환담하고 "교육, 재정, 복지" 분야에 한인교회와의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모임은 한인 기독교커뮤니티개발총회(대표 임혜빈, 이하 KCCD)에서 주관했다.

특히 목회자들은 정교도 정신을 잃고 종교 다원화, 휴머니즘이 스며든 방범론 중심의 교육을 지적했다. 박종대 목사(KCCD 이사장)는 "교육의 방법과 기술론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건의하고, 교육의 원리는 진리에 있으니 성경의 근간한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목사(LA 세계비전교회, 남



기독교 브리핑을 마친 후 기념촬영

가주한인목사회(증경회장)의 영어 브리핑을 중심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목회자들은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한인 교회 장소를 적극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인교회가 방과후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교육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정부측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시간 당 2.70~2.80불 상당

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불황 속 어려움에 처한 한인교회들의 교회 론 이자를 낮춰주고, 교회 잉여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건물(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 짓는 땅으로 이용할 경우 건축비의 45%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기독교 브리핑 이후 오후 3시 경 미국 노동청 힐다 솔리스 장관과 만난 목회자들은 기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만 제공되던 노동청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작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고, 솔리스 장관은 한국어 제작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내년 4.29폭동 20주년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종대 목사는 "한인 목회자들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유익이 될 정부와의 관계에 물꼬를 뜨게 됐다"고 기뻐했다.

임혜빈 대표도 "7명의 목회자가 동행해서 이 만큼의 정책 변화 약속을 받아냈다면, 한인 목회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복돋웠다.

이 모임에는 임혜빈 대표, 지미 리 이사장을 비롯 김재연 목사, 박종대 목사, 변영익 목사(베델장교회),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 엄규서 목사(원서중앙교회),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 정요한 목사(목사회 총무) 내외가 참석했다. 권나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21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213-386-5500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 음향·영상·조명 무료 세미나

**취지** 음향, 영상, 조명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실제 교회 미디어 사역에 활용되어지는 사례들과 질문들을 통해 그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사역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징** - 음향, 영상, 조명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제 필요한 예제 및 실습을 통한 알기쉬운 세미나.  
- 미주 한인 교회의 상황과 특성을 잘 이해하며 이에 적합한 미디어 활용팁 제시.

**대상** - 미디어 담당 사역자가 부재한 작은교회 교역자  
- 보다 전문적인 미디어교육을 원하는 평신도 사역자

문의전화 (323) 730-5050

일시: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시간: 오후 3시 ~ 오후 5시

장소: Laservision World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강사: Audio Nathan Kim  
Visual & Lighting Justin Lee : Laervision World

주최: 기독일보

주관: LASERVISION WORLD

후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남가주 기독교 한인 목사회, 복음방송



교회성장 전략가에서 기동운동가로 변신한 손인식 목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 기도하게 해”



통곡기도회를 시작할 때도 이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40일 대각성기도회도 그런 절망감 속에서 시작하셨겠군요.

제가 목회한지 30년, 전도사 시절까지 합하면 34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지만, 저부터 기도가 이렇게 통하고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체험, 이렇게 기도가 정착하다는 것을 깨달은 체험이 처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거룩함을 40일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은 기간이었습니다.

작금의 미국적 상황을 볼 때, 기도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 믿음이 제일 작습니다. 저는 기도회 첫날밤 한 3백명만 와도 잘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기도회에 본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부터 40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적이 물러가고 토설하기 시작했고 회개했습니다. 2세대를 위해 실시간 통역이 제공됐는데 2세대들이 손을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미주의 교협회장이 모여 우리가 미주의 대각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토론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됐죠.

-목사님께서 해 오신 기동운동은 기도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곡기도운동이나 북한 해방 운동이나 모두 기도가 중심이 되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 외에 행동이 그 뒤를 따라 왔습니다.

보편적으로 기도는 마치 골방에서만 해야 하고, 성전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정치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이원론은 현대의 언론들이 만들어 낸 경계선일 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모여야 합니다. 모이게 하는 역선이 필요합니다. 장소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제시받기 위해 감사도 필요합니다. 조직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도 정치라고 하고,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다루는 공간과 참여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그랬고 갈멜산 기도회도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는 종교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국가 차원의 기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는 아합과 이세벨 등 정치 지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갈멜산을 떠올리는데 이 갈멜산 기도회는 골방에 숨어서 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저변을 넓히고 그 절박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바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접근법에 따라 지난 10년간 기동운동을 해 왔습니다.

-과거 미주 한인교회는 한국교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왔지, 한인교회의 것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통곡기도회는 한인교회에서 시작된 열풍이 한국으로 전파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곡기도회부터 대각성기도회까지 전 미주에 기동운동을 벌이고 있는 손인식 목사로부터 그가 갖고 있는 기도회 관련 신뢰와 철학을 들어봤다.

-손 목사님이 베델한인교회에 부임하신지 20년입니다. 첫 10년은 교회 성장에 탁월한 전략가적 면모가 강했다면, 최근 10년은 기동운동가로 변신한 느낌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기도만 아니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행동을 요구하게 된 신데요. 통곡기도회의 경우만 해도 미국과 전세계 북한인권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지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훈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몸에 밴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늘 기도합니다. 문자적으로 “기도하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 적극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은 정말 기도 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아나 모세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극한의 절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에게 물어 봐도, 힐러리 장관에게 혹은 성 김 주한미군대사에게 물어 봐도 누구도 북한을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죄나 악 속에는 ‘답’이라는 패기

40일 대각성 기도회 통해 놀라운 하나님 개입 목도 전미주로 확산되며 한국까지 변화 꿈꿔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미스바기도회, 갈멜산기도회처럼 기독교인 일어나야

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돈이고 방향 상실입니다.

누구도 북한 문제에 답을 내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 덩어리가 북한을 다 집어 삼키고 이제 대

한민국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탄식의 상황 속에서 우린 극한의 절망을 느끼게 되고 이 절망으로 인해 기도하게 됩니다.

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부모들을 재촉해서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물려 들어서 성령의 임재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맥 광고국장 : 이인규 지 사 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이민국이 부담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친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전력도 덜 소모케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목사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Torrance \* Good 네이비스 (310) 326-6666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crover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요즘 우리는 현대차를 타고, 휴대폰은 삼성을 쓰고, 비행기는 대한항공을 탑니다. 제가 38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저기 좋은 제품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직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제품을 못 만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적 리더입니다. 국가를 국가되게 하는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동족을 향한 사랑을 갖고 동족을 구하려는 기도 운동”이라는 영적 상품이 한국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에 누구도 이런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운동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국가적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북한은 1만 마일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은 40 마일 정도입니다. 바로 코 앞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이 기도운동이라는 영적 상품이 더 불타났어야 합니다.

이 절실한, 영적 상품은 누가 알리고 팔아야 하나? 바로 우리 성직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상품이 목회자들의 손에서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에 가 보니 목회자들의 입에서는 이미 북한을 위한 기도가 사라진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여전히 대표기도, 개인기도 속에서 북한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곡기도회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었을 때, 수천명이 운집해 놀라운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바

로 풀뿌리같은 평신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기도는 동이란 것은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제일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 국토기도대장정으로 복음 통일 향해 한걸음 전진”

그런데 문제는 이 장점이 개교회의 장점에서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몇만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하루에 3-4번에 걸쳐 새벽기도회를 해도 이 커다란 태풍이 찾아 속의 태풍으로만 그치고 맙니다. 진정한 성령의 운동은 이 찾장을 깨고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곧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족의 문제, 동족의 문제, 운영적 공동체의 문제를 기도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교회는 20만 밖에 되지 않

는데 한국 어린이들을 모두 세뇌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자신들의 벽을 넘어선 활동을 해 냅니다.

기도가 교회 안에만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타성, 관성에 젖습니다. “기도? 그저 다 해 봤는데 안되더라” “성령 역사? 우리도 아는데 여가선 안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사건을 하나 보여줍니다. 하나니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아담사스다에게 보고할 때, 그것을 들은 느헤미야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

를 몰랐겠습니까? 금식을 몰랐겠습니까? 다 과거에도 해 봤던 것이고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만이 해결책이란 것을 다시금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역사의 철타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만 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주의 통곡기도회가 한국으로 전파된 것처럼 전미주로 확대된 대각성기도회도 한국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있습니다. 친북 좌파 세력이 진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 나와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세계선교, 그 기반을 강그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어떻게든 없애 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생존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은 히틀러의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던 과정, 레닌 중심의 볼셰비키가 러시아를 장악하던 때와 비슷한 형국입니다. 지식인, 언론인, 교수들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합니다.

그러나 일단 종북세력이 정권을 잡아 보십시오. 자신들을 도와 주었던 이들부터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교회도 다 없애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회와 선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조국과 후세대를 지켜 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박해를 견뎌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되어 국토기도대장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10만명, 100만명이 모여서 전국에서 기도대행진을 벌이는 것입니다. 좌우가 하나되고 1세와 2세가 하나되어서 한국의 통일과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운동입니다.

제가 얼마전 아내와 함께 독일에 2주간 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던 그때의 이야기를 독일인 목회자와 한 평신도로부터 들었습니다.

성니콜라이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기도회에 모이던 사람들이 2천여명이 일시에 거리로 나와 “우리가 국민이다”를 외치며 평화의 기도 행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도가 교회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이 외침을 들은 동독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측에서는 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여행 제한을 완화시킨다고 발표하면서 “동서독 사이에 벽을 없애기로 했다”는 상징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벽을 여행의 벽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으로 생각한 양국의 국민 수십만명이 일시에 몰려 나와 이 벽을 무너뜨려 버리면서 통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전국에서 대행진(Walk-A-Thon)을 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노래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실컷 기도해 보았지만 다시 한번 앞드러져 기도해 보



자는 것입니다.

통곡기도회처럼 하루 하고 흠지지 말고 몇날 몇일을 계속 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알고 보면 모두 대행진입니다. 출애굽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국토기도대장정을 함을 통해 온 국민이 기도 속에 하나로 녹아지고 서로를 받아들여지고 서로의 정체성과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행진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한국교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곧 한차례 더 한국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단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친북, 종북 세력들은 이런 운동을 막고자 하고 심지어 목회자를 조차 괜한 구설수에 오를까 이 운동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저는 통곡기도회 때처럼 가슴 속에 간절히 기도제목을 가진 평신도들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기도를 하나로 꿰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기자



베델한국교회에서 열렸던 40일 대각성기도회. 이 기도의 열풍은 교협 회장들의 손을 통해 전 미주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전월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24hr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료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LOS ANGELES ORT COLLEGE** 135년 역사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일한 직업 추천

**높은 소득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건축실제, 의사보조, 의사보조
2.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어카운팅 AAS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20일급, 방문비지(B1, B2)를 학생비지(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 ORT 졸업후 워크퍼밋, 소셜번호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줌

대표전화 (323) 966-5444 / Cell. (213) 703-6863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사+La Jolla, 버스20번) 상담 그레이스 (Grace)

강사 이호문 감독 초청 講師 李浩文 監督 招請

# 심령 부흥 대성회 心靈復興大聖會

일시: 2011.10.31~11.6(7일간) 새벽 4시30분, 밤7시  
장소: 3020 Wilshire Blvd. #216. L.A, CA 90010  
전화문의: (213)258-8717, (213)610-4989

**이호문 목사 약력**

승의교회 선교협의회 회장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총재  
전국신학원협의회 회장  
감리교회 전국 감독협의회 회장

담임: Paul 박용권 목사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 LA 부총장

광명선교교회 Bright Mission Chapel 光明宣教教會



# 캘리포니아 동성애 의무교육 반대 운동 결국 무산

## SB48 법안 저지 위한 서명 55만개에 미달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 교육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발의안 추진이 유효 서명 55만개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제출 시한인 10일까지 집계된 서명은 총 55만개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한 "STOP SB48" 측은 "SB48 법안 저지를 위해 필요한 서명을 모으는 데에 실패했다"

고 발표하고 "이 운동을 위해 노력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삶의 방식(동성애를 지지)에 우리 어린이들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했다"고 회고했다. 이 단체는 "동성애 지지단체들은 더욱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미국 전체에 동성애를 확산시

키려 할 것이며 우리는 그때마다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SB48법안은 효력을 발하게 되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동성 결혼을 하려는 결혼 형태로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운동에 적극 나섰던 남가주 교협도 안타까운 반응이다. 변영익 수석부회장은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하나되어 최선을 다했다. 한인교회의 98%는 동성애에 반대하지만 미국교회는 절반 대 절반이라고 한다. 미국교회를 적극 설득했다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12일 오바마 대통령과 NAE 지도자들이 백악관에서 만나 여러 현안들을 주제로 대화했다.

## 오바마 대통령 교계 지도자면담 종교 박해, 고용안정 등 논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미국 복음주의자들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 미복음주의협회(NAE) 실행위원들과 함께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만나 종교자유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NAE는 미국 전역의 40개 교단 4만5천 교회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단체로, 이날 NAE측에서는 대표회장인 리스 앤더슨 목사와 오바마 대통령의 종교 자문위원인 조엘 C. 헌터 목사, 미국 구세군 원리업즈 로버츠 사령관 등이 배석했다.

약 30분간 주어진 대화 시간 동안 NAE 지도자들은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서 배교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석방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나다르카니 목사의 사형 선고에 대해 이란

당국을 비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서는 세계 각국의 종교 박해와, 고용 안정, 이민법 개혁, 예산 삭감, 종교에 기반한 고용 권리, 해외개발 지원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과 오바마 대통령을 빚고 있는 낙태나 동성결혼 등에 대해서는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NAE측은 밝혔다.

한편, 이날 NAE 지도자들과 만나기에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을 백악관에 초청, 빈곤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을 담은 영화인 '58'을 함께 관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백악관에서 만남을 갖고 있지만, 복음주의 지도자들과만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번 만남은 NAE측의 회동 요청을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손현정 기자

## 대선이 불러온 "몰몬은 컬트 논쟁"

### 사회적으로 컬트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컬트 표현 옳다

차기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공화당측 유력 후보인 롬니가 믿는 종교, 몰몬에 대해 그것이 컬트인지 아닌지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논쟁은 최근 미국 남침례교(SBC)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가 몰몬교(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컬트(cult)'라 말한 데서 비롯됐다.

제프리스 목사는 텍사스 주의 영향력있는 교회인 제일침례교회의 담임목사다.

그는 지난 주 열린 보수 유권자 집회인 벨루스 보터 서밋(Voter Summit)에서 기독교인 후보에 대한 기독교계의 표 집결을 촉구하는 중 몰몬교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아, "몰몬교는 '컬트'이지 기독교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몰몬은 주류 기독교에 의해 단 한번도 기독교로 받

아 들어진 적이 없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롬니는 몰몬교인이므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롬니가 좋은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그것이 그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주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프리스 목사의 발언은 언론들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며 미국 일반 대중들 사이에 몰몬교가 컬트인지 아닌지의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대부분은 '컬트'란 단어의 의미가 갖는 모호함 때문에 혼란스러운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전했다.

신학적으로 '컬트'란 단어는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주장하나 실은 그 테두리를 벗어난 새로운 종교를 가리키지만, 미국 일반 대중은

'컬트'란 단어에서 리더와 추종자로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적 집단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 인사에게 열광하는 무리를 떠올린다.

이에 제프리스 목사는 자신이 '컬트'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장 리처드 랜드(Land) 목사도 이번 논쟁과 관련해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몰몬교인은 대개 중산층의 도덕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이며, 결코 사회적 의미에서 '컬트'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는 '컬트'란 표현이 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최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는 대통령 후보의 종교가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최근 CNN의 '피어스 모건 투나

잇(Piers Morgan Tonight)'에 출연해 인터뷰한 오스틴 목사는 대선 후보의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후보가 몰몬교인이라도 투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몰몬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는 몰몬교인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으로, 그의 종교가 당선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스틴 목사는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유대교인이나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투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나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 내 신앙에 더 가까운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현정 기자

## 40% 이상 美 청소년 혼전 순결 안 지킨다

### 청소년 성생활에 대한 보고서 발표돼

결혼하지 않은 십대들의 성생활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순결을 지키는 청소년들은 혼전 성교가 종교의 가르침이나 도덕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립건강통계센터의 이 연구는 15세에서 19세 사이 결혼을 하지 않은 4662명의 십대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남성은 2378명, 여성은 2284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58%, 여성은 57%가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


성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은 피임약(14%, 이하 중부응답), 피임패치(10%), 피임필(5%)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임신을 피하고 있었지만 절대 다수(96%)는 콘돔에 의지하고 있었다.

첫 경험 때 콘돔을 사용하는 남성은 80%였다. 이는 2002년 조사 당시 71%였던 것에 비하면 9%나 상승한 수치다. 첫 경험 때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남성이 85%, 여성이 78%였으며 최근에도 피임도구를 사용했다는 청소년은 남성이 93%, 여성이 86%였다. 그러나 관계 때마다 콘돔을 사용한다는 청소년은 남성이 66.5%, 여성이 49%에 지나지 않았다.

〈당신의 자녀와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의 저자 엠버 매디슨은 "처음에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콘돔을 사용하던 청소년들은 계속 관계를 갖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신뢰하게 돼 콘돔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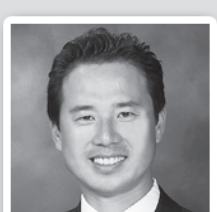
김영선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푸엔테 힐스 현대**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융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전인 치유 사명을 기도와 말씀, 예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편입생 모집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 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경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노,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예약 전화 : 562-965-5112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 남가주광염교회 행복한 가을 축제

남가주광염교회(담임 정우성 목사)에서 가을축제를 열고 있다.

이 교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말씀의 잔치로 데이빗 이 목사(예수님을 향한 열정 미니스트리 대표)를 초청해 저녁 7시30분에 진행됐고, 오는 21일 저녁 같은 시간에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경학교 대표)를 초청해 성경적 풍성개발 세미나를 갖는다.

14일 저녁 데이빗 이 목사는 '아가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목사는 "사람들은 마약, 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입맞춤을 통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목사는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음식에 대한 굶주림을 창조했기 때문"이라며 "사단은 이 갈망들을 교묘히 사용해 우리를 흑암으로 인도해 하나님께 창조하신 즐거움의 모조품들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복음의 총명한 진리를 맞보기 전까지는 죄가 최고의 즐거움을

데이빗 리 목사 "복음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



복음 안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데이빗 리 목사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탁월한 즐거움은 열등한 죄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목사는 "복음이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불 같은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사

랑 안에 살라는 초대"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즐거움을 아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가주광염교회에서는 영성

과 실력, 지혜를 갖춘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원한 토요학교인 '김남드림 아카데미'가 5-12세(K-6학년)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 중에 있다.

수업료는 없고 월 20달러의 점심값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 : 213-598-0191  
토마스 맹 기자

# 친환경 교회 보셨습니까

정원사들의 마음으로 불리는 가디나(Gardena)에 가면, 가디나를 대표하듯 웅장한 아름드리 나무가 마당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 뒷밭에는 고추, 상추, 토마토 등이 재배되고 있고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이 밭을 일구고 재활용 나무로 직접 벤치를 만들어 놓은 교회다.

가디나장로교회를 담임하는 김성환 목사가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14살에 토렌스로 이민은 1.5세대. 줄곧 이곳에서 자라 고등학생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신학을 하기에 좋은 학부 과정을 찾아 UCLA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곧바로 풀러신학교로 진학해 M.Div.를 마쳤다.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설교학으로 Th.M. 학위도 취득했다. 뉴욕 롱아일랜드 아름다운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부목회를 하다 지난 1월 가디나장로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다.

그가 부임한 이후 교회에는 활력이 넘치고 있다. "일단 설교에 전력을 다한다"는 김 목사는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이 다 중요하겠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설교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근원"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교회에 활력이 넘치니 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 존재감 없이 교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흙무덤이 텅밭으로 바뀌었다. 이곳에서 목사와 장로, 성도가 하나되어 밭을 가꾼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서, 또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운다.

교회 행사 때마다 텃밭에서 직



담임 김성환 목사(좌)와 평신도 리더가 함께 일꾼 텃밭의 수확물을 보여 주고 있다.

접 판 상추와 고추로 성도들이 식탁고제 하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다고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벤치도 사라졌다. 대신 통나무와 못으로 직접 만든 무공해 재활용 벤치가 등장했다. 교회 중앙에 있는 큰 아름드리 나무 밑에는 평상까지 등장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나무를 자르고 못을 치며 만든 것이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교회가 나서는 모습도 좋고 40세 젊은 목사와 60대 장로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만든 작품이라 더 보기 좋다.

목사 장로의 갈래에 상처받고 지친 성도라면 이번 주 화목과 사랑,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가디나장로교회를 방문해 보면 어떨까?

문의)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4828 (310) 217-9191

이인규 기자

#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34주년 기념해 임직식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해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거행했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가 창립 34주년 기념 임직 감사예배를 16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변영의 목사(벤일장로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34년이 되었지만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 직분을 받은 자들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남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면을 전한 김재현 목사(태메를라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직분이 맡겨졌다"며 "주의 일에 힘써서 하늘의 상을 크게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로장로 2명 추대, 장로 2명, 안수집사 4명, 권사 5명 등 총 13명이 임직을 받았다.

임직 감사예배는 집례에 엄영민 목사, 기도에 임덕순 장로, 설교에 변영의 목사, 안수기도, 권면 및 축사에 김재현 목사, 담사에 연도훈 장로, 신창은 장로, 특별찬양에 문창준 장로, 심상도 집사, 인사 및 광고에 신병우 장로(준비위원장), 축도에 최현우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 남가주목사회 중국동포 자녀 장학금 지급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지난 16일 풍성한교회에서 중국동포 자녀 윤철성 군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 이웃교회들 축하 속에 엘바인사랑의교회 헌당

엘바인사랑의교회가 창립 2년 만에 138만불 규모의 건축을 마치고 새성전에 입당했다.

2009년 6월 14일 남가주사랑의교회 김남드림지플랜팅 계획에 따라 남가주사랑의교회의 6번째 지교회로 설립된 엘바인사랑의교회는 다음해 6월부터 건축위원회 모임을 시작해 1년 후 새 성전을 갖게 됐다.

10월 9일 새성전 헌당감사예배에는 베델한인교회의 손인식 목사, 엘바인우누리교회의 박종길 목사 등 소위 엘바인 지역의 경쟁 관계에 있는 교회들이 따뜻한 축사를 보내 왔다. 이 목회자들은 "새 성전 헌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시작해 "계속 발전해 엘바인 지역의 복음화에 협력하자"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마쳐 큰 박수를 받았다. 또 모교교회인 남가주사랑의교회로부터 장로와 성도들이 다수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설교를 맡은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는 "더 위대한 완성을 위하여"라는 설교에서 "엘바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며 "복음의 기초 위에 서로 연결되어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담임 박현식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 베스트 영어훈련원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훈련원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화한 훈련원

# 제18기 훈련생 모집

- 훈련대상**
- ▶ 오랫동안 공부했으나 영어회화가 잘 안되는 분
  - ▶ 직장생활과 비즈니스하는데 영어회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
  - ▶ 다 아는 내용인데 말이 안되는 분
  - ▶ 영어회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주생활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분
  - ▶ 미국사람만 보면 겁이 나고 말이 안 나오는 분
  - ▶ 라디오, TV가 전혀 안 들리는 분
  - ▶ 미국식 발음과 문법에 자신이 없는 분

#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16,17기 훈련생을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 뉴욕 한국인보 기자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격찬 뉴욕 맨해튼 기독교 방송 아나운서가 직접 참석을 통해 확인/LA 다양한 계층 훈련후 찬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수개월 해외 연수보다 더 효과적인 곳!

#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눈으로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식 방식으로 대 전환
- ▶ 음성학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중첩반복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약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강사보다 학생이 더 많은 말을 한다.

# 3년 과정을 3개월에 끝내는 베스트 훈련원의 약점 9가지

1. 분석하지 말 것. 단순히 트레이닝 하라.
2. 공부하지 말 것. 훈련하라!
3. 책 내용을 끝냈다고 방심하지 말 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4.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 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5. 모르는 것은 낯선 것일뿐, 낯을 익혀 익숙해져라!
6.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7.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 것,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8. 이럴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끝없는 공금증을 가져라!
9. 하늘엔 따지 검증된 누를항... 서당식 영어를 하라!

한국영어훈련소의 특별한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득희 저자 영어훈련소(김영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빈곤

요한계시록 3:14-22

장재효  
서울성은교회 목사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65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동쪽으로는 에게해 연안으로 가는 예베소가 있고, 남쪽으로는 시리아로 가는 브루기아 지역의 관문으로서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직조사업이 왕성했고 안약을 만드는 풀이 자생하는 곳으로 안약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여유로운 형편의 삶을 살다보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은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렇게 되어 지기를 믿고 동의한다는 아멘으로 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자기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얻기를 소원하시며 하늘나라를 물려주시길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예수님)으로 창조해 내실 때에 그 근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된 것이 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듯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항상 지켜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그들이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믿음과 내세소망의 확신이 없으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遺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면 우리에게 지옥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이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인들은 육체적인 세상 조건만을 중요시하여 그들의 신앙은 끝이 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죽어 있었기에 예수님은 영적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곤고(곤란하고 괴로우)로 인해 지옥불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련한 처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서 심령은 죽었고 유행불에 던져지기 직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멀어 육신의 세상 조건만을 바라보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8절의 “내가 너를 권하노니”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아량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는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단련시키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는 그 보혈의 힘

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의(義)의 세마포 예복을 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무슨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게 하실 때에 중심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 그 엄청난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서 예수님이 입혀 주시는 것이 하얀 세마포입니다. 이것을 입으면 전날에 지은 죄와 허물, 괴로움이 이 세마포로 인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완전한 구속(拘束)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육신의 탐욕과 허욕을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생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 서둘러서 회개하라고 재촉하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은 무디고 완악한 심령들이 마음 문을 굳게 닫아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일러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의 못 박하신 피 묻은 손이 에타는 심정으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에타는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영적 양식으로 먹이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교회 부흥의 장애요인이 되고 목자가 목회하는 데 전혀 쓸모없는 자로 예수님께 버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유기될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회개해서 주변 환경과 형편, 원수마귀의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21절)”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여서 권고하고 질책하고 야단을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화인(火印)맞은 심령입니다. 불로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것처럼 그 자리는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무디고 완악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불로 단련시키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믿고 회개하여 의의 세마포를 입어 지금까지의 죄악을 가리고 오로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그 도시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게 되면 나라도 망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허물어지고 흑암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신문설교 선교

- 한국** CBS TV 수요일 오후 8:40 / CTS TV 금요일 오전 6:00 / 기독교 연합신문 3면 설교문
- 미국** 워싱턴 D.C. CBS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8:00  
워싱턴 D.C. COX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12:00  
토요일 오전 7:00, 주일 오후 10:3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30, (동부) 오후 6:30  
토요일 (서부) 오후 6:00, (동부) 오후 9:00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 설교

장재효 목사 :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선목회 회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총재.

창립33주년을 맞이한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가주노회 소속

##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조건:**
- 1)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이거나 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2) 이민 목회 경력이 3년 이상된 목사(부교역자 경력포함)
  - 3)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가능하신 분
  - 4) 연령은 39세 - 45세 사이

-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본인 및 가족사진
  - 3) 목회 비전서
  - 4) 목사 안수증명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 6) 목사 2인 추천서
  - 7) 최근 설교 2편(CD)

**제출기한:** 2011년 11월 4일(금)까지

**제출하실 곳:** 청빙위원회 앞  
1821 Alta Vista Place, Camarillo, CA, 93012  
혹은 E-Mail : ahnfamily1821@aol.com

**문의:** 임진태목사 (805)816-2373



##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0월 24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장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턴)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메디케어

We know Medicare

현재 5 후원

하나 헬스 보험의 대표 DAVID KANG입니다.

저희 하나는 한인 시니어들의 올바른 건강보험의 선택을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시니어들이 찾기에 편안한 지역 사무실에서 시니어
건강플랜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각 시니어들의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라 적절한 플랜을
추천하고 있으며, 65세의 메디케어 자격을 갖추신 분을 위한 메디케어, 그리고 EXTRA
HELP 플랜, MEDICARE SAVING PROGRAM의 신청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시니어 플랜만을 서비스 하는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 당신의 메디케어 C(CHOICE) 플랜 선택!

2011년 메디케어 플랜은 2012년에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

캘리포니아 전역을 보장 하는 RPPO 플랜이 2012년 1월 1일부터 혜택이 중단되었습니다.
RPPO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플랜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변경 하여야 합니다.

메디칼 플랜의 변화

2011년 10월 1일부터 1년 병원 방문회수가 7회로 제한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일 부터는 병원 방문 시 \$5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실 때 하루 \$100
최대 \$200 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응급실 방문 시 \$50을 지불 하여야 하며, 감기약 기침약 건강 보조 약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상기의 사항은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메디칼과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가 병원(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등)을 7회 방문 하고 나면 8회 방문부터 메디칼 혜택이 중단(잔여기간)되므로 나머지 메디케어 보험만으로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의료 보장 범위는 80%이므로 나머지 20% 부족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약의 본인 부담금도 \$1-\$3에서 \$3-\$5를 지불 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 의사 선생님 들 같은 경우 20%
부족분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병원에 입원 하거나 특수분야의 의사를 방문 하였을 경우는 본인이 지불 하여야 합니다.)

하나에서 추천하는 메디케어 C (CHOICE)보험

- PPO 플랜 기존의 캘리포니아 전역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각 지역에 따라 매달 보험료가 있는 플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LA 카운티 \$0, ORANGE 카운티 \$40, RIVERSIDE 카운티 \$106 등등 카운티에 따라 그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LA 카운티 거주민은 2011과 비슷한 보험혜택을 받게 되지만
다른 카운티 지역의 거주민은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새로운 플랜으로 변화를 주는 것을 권장 합니다.
● HMO 플랜은 각회사마다 그 특징이 매우 다양 합니다. 플랜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될 사항은 현재의 주치의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주치의를
항상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바뀌시는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인의 건강플랜의 에이전트의 전문성입니다. 메디케어 플랜은 일반 건강보험과는 매우 다른 건강 보험입니다. 즉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입니다. 반드시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셔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건강 보험회사 메디케어 HMO 플랜의 특징을 순서에 관계없이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플랜의 선택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1. PPO 플랜 은 의사와 병원의 선택이 보험 수혜자가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와 병원을 보험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소정의 본인 부담금 병원 방문
시 \$15 전문의 방문 시 \$25 보험 시작 전 본인 부담금 \$300 등이 있습니다. 즉 비교되는 HMO 플랜 보다는 조금 부담이 있지만 병원이나 의사의 선택이 자유스럽습니다.
2. HMO 플랜 각 회사의 특징 중에서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 HMO 플랜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기존 플랜의 경우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치과치료가 되지만 이 플랜의
특징은 보험회사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약정된 금액만 지불하면 치료가 가능한 플랜입니다. (전체틀니 상 \$475, 하 \$475, 치아 신경치료 \$270 등 각 분야별로 정하여진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치료가 가능한 치과 치료 할인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한국 치과 선생님 들이 포함되어 있어 치과 치료가 용이 합니다. HMO 플랜이기 때문에 주치의를 정 하여야 하지만 많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선택이 아주 편안 합니다. 병원 방문 시 \$0, 각종건강검진 \$0 이며 병원 입원 시 하루 \$50씩 5일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처방약
보험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처방약 \$5 정도에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메디-메디의 경우 모든 약 \$3-\$5 구매) 본인 부담금이 매우 적은 프로그램입니다. (플랜은 각 카운티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HMO의 단점은 본인이 지정한 병원과 의사를 통해 의료 행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지정 된 병원과 의사를 통하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LA & ORANGE 카운티라고 지정이 되면 LA와 ORANGE 카운티내의 플랜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타주 뉴욕이나 다른 주의 친지 방문이나 여행 중에 의료 혜택이 필요 하신
경우 응급실진료 보장 3일 후에는 반드시 본인의서비스 지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대반만 이 플랜의 경우 타주에서도 여행이나 친지 방문 시 록 LA 와 ORANGE 카운티에서와
같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치의 방문 시 \$5 전문의 방문 시 \$10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4. HMO 플랜 중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공제하여 주는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의 특징은 본인의 소셜 연금에서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 중 \$75을 공제
합니다. 즉 부부라면 \$75\*2\*12=\$1800, 연간 소셜 연금 메디케어 공제금 \$1800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주치의나 전문의 방문 시에도 \$0 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단 약점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5. HMO 플랜 중 특별한 치료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도 있습니다. 신장 투석자 나 심장질환을 가진분 혹은 심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을 위한 전문 건강 보험도 있습니다.

많은 플랜중 본인이 가장 맞는 플랜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은 보험료가 없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은 대부분 처방약을 보장 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의 대부분은 해외 응급사항에 대한 보장을 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은 각 회사의 플랜에 따라 추가 혜택이 다릅니다.
예) 치과 플랜이 좋은 회사, 혹은 보청기를 보장하는 회사, 한방 침을 보장 하는 회사 등등 각 회사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 모든 것을 다 보장 하는 회사는 그 보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회사의 역사 그리고 회사의 규모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고객서비스 1-855-386-3088 Fax, 213-386-3992

※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약하시면 상담합니다.

LA 사무실



PRESIDENT: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3600 WILSHIRE BL #1620,
LA, CA 90010

\* DAVID KANG 이 월, 화, 수 근무합니다.

TORRANCE 사무실



DISTRICT MANAGER:
SARA IM Lic.#0F07269

Tel. 310-702-7006

20695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목요일 근무합니다.



PRESIDENT: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2350 W SEPULVEDA BLVD #A,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금요일 근무합니다.

BUENA PARK 사무실



DISTRICT MANAGER:
MI YOUNG HONG Lic.#0672051

Tel. 714-715-6345

6011 ORANGETHROPE AVE #A,
BUENA PARK, CA 90620

저희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광고의 무단복제는 금합니다. 상기의 정보는 특정 상품의 광고가 아닌 시니어 건강보험에 전반적인 교육자료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융합신앙으로 성장하는 남성소망교회

# 중형교회 운동하려고 통합했는데 잘 안되어서...

물리적 통합 버리고 화학적 융합 필요한 때



남성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재욱 목사

교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기는? 교회의 지역사회 전도가 가장 활성화 되는 시기는? 성도들의 교회 활동 참여, 봉사가 가장 잘 동원되는 시기는? 중형교회 때다. 1백명에서 3백명 가량의 교회일 때다.

“모든 목사는 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일 때는 맨 파워가 약해 그 비전을 향해 일할 여력이 없습니다. 생존 모드죠. 이 상태에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형교회와 일단 되고 나면 대형교회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렇다면 대형교회일 때는? “최근 바나리서지의 보고에 따르면 성도 5백명 이상 대형교회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55%라고 합니다.”

남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욱 목사의 말이다. 그는 LA 지역에서 중형교회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인물로 이민사회변화연구소 소장, 갈릴리 신학교 총장 등을 맡고 있다. 호남 신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샌프란시스코신학교에서 M.Div. 학위를 마치고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D.Min. 과정에 있는 그는 중형교회 운동에 있어서 ‘융합’을 강조한다.

가장 빠른 성장율을 자랑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가장 잘 목양할 수 있는 규모가 중형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교회가 중형교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하는 중형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그는 제시한다. 먼저는 대형교회가 지교회로 분립해 주는 형식이다. 익명성 속에 숨어 있는 선데이 크리스천들의 비율을 그나마 줄일 수 있으며 그들의 활발한 전도와 봉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자연히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방법은 소형교회가 통합해서 중형교회를 이루는 방법이다. 맨파워가 강해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탄탄해져 안정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두 방법 가운데 전자는 이미 남가주 지역의교회 등 대형교회들이 시도한 방법이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보다 약간 더 많

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김재욱 목사 역시 남성소망교회에 시무하던 중 은혜사랑교회와 통합하며 중형교회로의 비약을 시도했다. 이 과정 중 자신이 담임직을 내려놓는 희생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두 교회가 개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리적 통합만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두 교회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물과 기름 같았고 결국 한 무리의 성도들이 떠나면서 통합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 과정 중 그는 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착안하게 된다. 통합은 외부적 힘이 필요하다. 경제적 요구든지, 시대적 요구든지 외적인 힘이 가해져야만 통합이 된다. 그 외부적 요인이 약해지면 당연히 다시 해산된다. 그러나 융합은 화학적으로 녹아져서 공동체성을 가진 하나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 융합은 서로 다른 양자가 모순이나 갈등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2개 교회가 통합되는 것보다 4-5개 이상의 교회가 통합될 때 교회 간의 벽이 더 쉽게 허물어지는 융합이 이뤄져 멜팅팟(melting pot)이 되는 것도 이런 이치다.

그래서 3백명 이상의 교회가 되면 모교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0명 정도가 또 분립해 나가는 식으로 중형교회와 중형교회로 계속 유지되면서 중형교회를 개척해 가는 것이 그가 주창하는 중형교회 운동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양극화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그가 시무하고 있는 남성소망교회는 통합 과정에서 비록 어려움을 맛보았지만 융합이란 개념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도약을 하

고 있었다.

그는 “4개 머릿들” 위에 교회를 이끌고 있다. 첫번째는 기존의 남산교회, 여선교회를 녹여 연령별로 융합시켜 놓았다. 연령대가 비슷하기에 서로 의기투합도 잘 되고 모임도 잘 이뤄진다. 각 연령별로 할 수 있는 전도 목표를 정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두번째는 기호별로 성도들을 융합시켰다. 골프, 탁구, 요리 등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사역별 소그룹이다. 예배 봉사 전도 교제 훈련 등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사역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묶어 놓았다.

네번째는 가정별 소그룹이다. 요즘은 다 관계전도를 하는 시대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찾아 오는 것도 좋지 않지만 먼저 가족, 친지부터 전도하는 것이다. 이민사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가족 관계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4가지 머릿들은 모두 김 목사의 “융합”이란 개념에서 나왔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융합의 개념을 교회에 도입한 결과 남성소망교회는 현재 120명이 출석하는 튼튼한 교회로 성장했다. 매주 10-17명이 교회를 새롭게 방문하고 있으며 주일 오후 무료 어린이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지역사회 봉사에서 열심이다.

현재는 원서와 노튼이 만나는 윌셔초등학교(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강당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학교 맞은편 건물(4055 Wilshire Bl.) 2층에 교육관이 있다. 문의) 213-550-7377

이인규 기자

## “교육과 선교” 두날개로 비상하는 Vision International Univ.



조엘 조 이사, 아브라함 이 총장, 서승원 학장, 이모스 안 부총장

LA에 아주 특별한 신학교가 설립됐다. 수십년간 현장 선교를 하던 배태랑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인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VIUA)를 설립했다.

VIUA는 호주 시드니에 본교를 두고 전세계에 150개 캠퍼스를 가진 종합대학교이다. 이 대학교의 한 캠퍼스이면서 동시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별도 대학으로 설립된 VIUA LA 캠퍼스는 아브라함 K. 이 총장, 이모스 H. 안 수석부총장, 박용권(Paul) 부총장, 서승원 학장, 조엘 U. 조 이사, 김청웅 이사, 피터 황 이사 등이 이끌고 있다.

이 총장은 20년간 칠레에서 선교를 하며 칠레 복음화 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안 부총장은 중국신교를 오랫동안 감당하며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곳에서 차세대를 육성하는 데 크게 힘써 왔다. 조 이사는 브라질 신교사 출신이다. 김청웅 이사는 한국감리교회 해외신교의 선구자이고 피터 황 이사는 청소년 사역을 크게 했다. 그레고리 박 이사는 미디어 국장으로 VIULA의 사이버 프로그램을 전담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를 두고 “이제야 뭘 좀 알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겸손을 엿볼 수 있다. 많은 신학교에서 선교에 대해 가르치지만 선교사로서 파송된 많은 이들이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현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적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는 참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과 배경을 고수해 제한조건이 상이한 선교지에 이식하려는 선교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또 바람직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이제 교육과 선교가 두날개를 이루는 대학을 꿈꾸며 이 대학

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서승원 교수를 학장으로 영입해 학문성에도 만전을 기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국립아테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안 총장은 유대인에게 직접 히브리어를 배우기도 한 히브리어 분야의 전문가이며 이 총장과 조 이사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가르치고 있다. 전문가들의 강의인만큼 흉내내는 수준의 언어 실력이 아니라 선교에 직접 필요한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들은 언어가 선교의 중요한 요소인만큼 향후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수업도 개설하려 한다.

현재 이 학교는 760 S. Westmoreland Ave., LA CA 90005에 위치한 퍼스트베스트교회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라티노 30명, 중국인 30명이 모국 선교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피터 황 이사는 정소년 사역을 크게 했다. 그레고리 박 이사는 미디어 국장으로 VIULA의 사이버 프로그램을 전담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를 두고 “이제야 뭘 좀 알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겸손을 엿볼 수 있다. 많은 신학교에서 선교에 대해 가르치지만 선교사로서 파송된 많은 이들이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현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적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는 참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과 배경을 고수해 제한조건이 상이한 선교지에 이식하려는 선교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또 바람직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이제 교육과 선교가 두날개를 이루는 대학을 꿈꾸며 이 대학

### [베스트 영어훈련원] 3년 과정을 3개월만에 술술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훈련원,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화한 훈련원, 베스트 영어훈련원(원장 최성규)이 제18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베스트 영어훈련원 제18기 훈련은 3개월간 LA한인타운과 풀러튼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LA한인타운은 6가와 뉴햄프셔에서 24일부터 매주 월·화·수요일에 오전·오후반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풀러튼에서는 브룩헤스트와 유클리드 사이 은혜한인교회 동쪽으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25일부터 매주 화·수·목·금·토요일에 오전·오후반으로 나눠서 훈련한다.

베스트 영어훈련원은 훈련에 앞서 무료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LA훈련원에서, 22일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풀러튼 훈련원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3개월간의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580달러.

언어학자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화한 베스트 영어훈련소는 △분석하지 말고 단순하게 훈련하라 △끊임없이 반복하라 △외우지 말고 반복하라 △뇌리에 영

어코드를 만들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라 △서답식 영어를 하라 등의 원칙을 기본으로 시·청각, 구강근육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법으로 영어의 말

문이 트이도록 훈련한다. 문의 : 213)239-4815, 213)507-0691 주소 : 3251 W. 6th St. #101, LA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이인규 기자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 ESL 프로그램
- 한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듣는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용, 피부상제,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Teaching & Mission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 LA**

**—우리의 공동 목표—**

오래전부터 한국과 미국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고, 중남미와 아시아 등 제3세계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품어왔던 저희들이 Teaching과 Mission의 두 날개를 펴고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 LA(VIULA)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선한목자와 같은 진실하고 충성된 목회자 양성
- 사명감과 실력을 겸비한 다민족 전문인 선교사 양성
- 교회의 신학교의 기쁨을 주도할 잠신한 지도자 양성
- 올바른 복음주의 신학을 정립할 세계적인 신학자 양성
- 교회를 섬기고 교육과 선교에 헌신 할 평신도 헌신자 양성

**VIU의 동역자들 :** Abraham K. Lee 총장 D. Miss.(좌측) Stan E. Dekoven 총장 Ph. D.(중앙) Amos H. Ahn 부총장 Ph. D. (우측)

**학생모집 안내**  
정시 / 수시: (Online, Offline 강의)  
학위: 학사 / 석사 / 박사 (D. Min., D. Miss., Ph. D.)  
I - 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WHOLE WORD TO THE WHOLE WORLD / CHURCH LIKE SEMINARY, SEMINARY LIKE CHURCH**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 제4차 미주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



“이 시대 젊은이들이 생령의 불로 변화되는 현장!”  
“더 높은 부르심 앞에 서는 현장!”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4000명

등록방법 : [www.gkymwest.org](http://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등록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 Early Bird : 11월 7일까지 \$160

00:00.05

(단체등록시 목회자 할인혜택)

00:00.04

1차 : 11월 30일까지 \$180

00:00.03

2차 : 12월 11일까지 \$200

00:00.02

3차 : 12월 20일까지 \$240

00:00.01

### [www.gkymwest.org](http://www.gkymwest.org)

Dave Gibbons  
Newsong Church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Francis Chan  
Author of  
Crazy Love

Darryl Smith  
Student Venture

이용규선교사  
Missionary to  
Mongolia

안찬호선교사  
Missionary to  
Kenya

이용희교수  
Esther Prayer  
Movement

한철호선교사  
Mission Korea  
Partners

손인식목사  
Bethel Korean  
Church



#### 차세대선교자원개발을 위한 GKYM선교대회후원안내

하나님께서 미주에 청년학생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해 3000명, 올해는 4000명의 청년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선교자원인 이들이 선교대회에 적은 부담으로 참여하도록 개별 등록금 이외에 1인당 70불이 더 필요합니다.

이일을 위해 차세대선교자원을 위한 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세워지도록 1구좌 70불씩 4000구좌가 채워지도록 힘과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이들은 점차 한국 주도의 세계선교의 장을 열어갈 선교세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명예대회장  
대표대회장  
대회장/강사

박희민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손인식목사(베델한인교회)  
고송희목사(아름다운교회)  
김희수목사(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민중기목사(중원선교교회)  
박성규목사(주님세운교회)  
박성환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김동환목사(KCCUSA)  
김지성목사(글로벌선교교회)  
이성우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준비위원장  
실행위원장  
조직위원장  
트랙실무책임

Sam Koh 목사(Hillside Ministry of LACPC)  
권태산목사(하나님의 꿈의 교회)  
김정환선교사(SON Ministry)  
박문환목사(아가페선교교회)

한기형감독(나성동선교회)

신승훈목사(주님의 영광교회)

이성현목사(드림교회)

임현수목사(토론토큰빛교회)

최홍주목사(에브리데이교회)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송병주목사(선한청지기교회)

이광길교수(플러선교대학원)

조현영목사(큰빛감리교회)

최경록목사(또감사선교교회)

주관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 KCC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GAP(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 흰돌선교회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 CGNTV / CTS / KCMUSA / 중앙일보  
한국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미주크리스찬신문 / 크리스찬뉴스위크  
크리스찬투데이 / 기독교일보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vision@gmail.com](mailto:gkymvision@gmail.com)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 |  |   |   |  |
|--|---|---|--|
| <b>갈릴리선교교회</b><br>담임: 한천영 목사<br>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br>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br>youth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br>2212 S. Western Av. LA, CA 90018<br>T. (323) 735-6412 / www.gmchurch.com   | <b>감사한인교회</b><br>담임: 김영길 목사<br>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br>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br>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br>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br>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br>T. (714) 228-9540 / F. (714) 521-4636 | <b>갯스윌연합교회</b><br>담임: 이화철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br>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br>3부예배 오전 1:00 주일학교 오후 1:00<br>어린이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br>904 E D St, Ontario, CA 91764<br>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 <b>그레이스웨이브교회</b><br>담임: 송규식 목사<br>주일예배 오후 12:30 영어예배 오전 10:40<br>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br>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br>T. (714) 699-0210  |
| <b>나성순복음교회</b><br>담임: 진유철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br>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br>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br>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br>T. (323) 913-4499 / F. (323) 913-4494  | <b>나성열린문교회</b><br>담임: 박현성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br>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br>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br>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br>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 <b>나성소망교회</b><br>담임: 김재용 목사<br>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br>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월-목) 오후 7:00<br>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br>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br>4063 Ingraham St LA, CA 90005 (필사미크로중학교강당)<br>T. (213) 550-7377 / www.lahopecchurch.com                                   | <b>LA 만나교회</b><br>담임: 남강식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br>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20<br>3부 EM 오후 1:45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br>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br>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br>T. (213) 365-6191 / F. (213) 365-6291 |
| <b>남가주광영교회</b><br>담임: 정우성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7:30<br>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br>성경공부: (화)오후 7:30, (수) 오전 5:30, 2부: 오전 6:30<br>(목) 오전 10:30 (토) 오전 6:30<br>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br>T. (213) 598-0191                          | <b>남가주동신교회</b><br>담임: 손병렬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br>2부예배 오전 10:00 4부(성년)예배 오후 1:30<br>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br>T. (714) 680-9556 / F. (714) 680-6418   | <b>남가주리디머교회</b><br>담임: 김요섭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br>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br>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br>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br>T. (213) 215-8523 / www.scrdm.org   | <b>남가주명성교회</b><br>담임: 정해진 목사<br>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br>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월-토) 오전 5:30<br>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br>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br>T. (213) 383-9182, F. (213) 251-9182                                   |
| <b>남가주빛내리교회</b><br>담임: 박용덕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br>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br>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목)예배: 오후 2:30<br>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br>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 <b>뉴월드임마누엘교회</b><br>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br>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br>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br>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br>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br>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 <b>대양장로교회</b><br>담임: 류명열 목사<br>1부예배 오전 9:00<br>1325 12th Ave LA, CA 90019<br>T. (323) 731-9819 / C. (213) 440-0125  | <b>대흥장로교회</b><br>담임: 권영국 목사<br>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br>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br>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br>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br>T. (310) 719-2244 / www.dkpc.org                           |
| <b>돌로스교회</b><br>담임: 서보현 목사<br>-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br>(오전) 1부예배 9시, 2부 11시 금요성경(화-토): 오후 8:00<br>중·고등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br>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EM(목)예배: 오후 6:00<br>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br>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 <b>드림교회</b><br>담임: 이성현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br>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br>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br>T. (626) 793-0880 / F. (626) 793-6412                            | <b>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b><br>담임: 강지웅 목사<br>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br>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br>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br>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br>T. (323) 930-1088 / F. (323) 930-0788   | <b>미주비전교회</b><br>담임: 이서 목사<br>1부예배 오전 8:45 영어예배 오전 9:30<br>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찬양 저녁 7:30<br>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br>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br>T. (714) 999-9900/http://www.visionccc.org                       |
| <b>미주양곡교회</b><br>담임: 지용덕 목사<br>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br>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br>주일찬양예배 오후 1:30<br>519 Western Ave. LA, CA 90020<br>T. (213) 380-9377, F. (213) 380-9378   | <b>베델한인교회</b><br>담임: 손인식 목사<br>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br>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br>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br>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br>T. (949) 854-4010 / F. (949) 854-4018                                | <b>삼성장로교회</b><br>담임: 신원규 목사<br>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br>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br>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br>T. (714) 524-2029 / F. (714) 524-8844  | <b>소중한사람들</b><br>대표: 김수철 목사<br>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우터널 4기 Crocker St)<br>1부가례예배 오전 7:00<br>2부센타예배 오전 9:30<br>1856 W 11th Place, LA, CA 90006<br>T. (213) 385-4515 / F. (213) 385-5474  |
| <b>새생명오아시스교회</b><br>담임: 김일형 목사<br>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br>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br>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br>T. (213) 383-2939   | <b>세계성경장로교회</b><br>담임: 강신권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br>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br>새벽기도(화-토) 오전 5:30<br>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br>T. (310) 793-2297, 2298(Fax)  | <b>세리토스장로교회</b><br>담임: 김현오 목사<br>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br>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br>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br>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br>5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br>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br>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 <b>시온성중양교회</b><br>담임: 박상규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br>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br>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br>T. (714) 995-2868 / F. (714) 995-0169   |
| <b>씨니사이드교회</b><br>담임: 조인수 목사<br>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br>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br>영어예배 오전 10시<br>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br>T. (213) 389-0691 / F. (213) 389-0694  | <b>아름다운교회</b><br>담임: 고승희 목사<br>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br>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br>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br>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b>안디옥장로교회</b><br>담임: 지용성 목사<br>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br>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br>3부(영어)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br>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br>T. (818) 249-2871 / F. (818) 249-0516   | <b>얼바인침례교회</b><br>담임: 한중수 목사<br>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br>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br>3부예배 오전 11:45<br>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br>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
| <b>영광빛복음교회</b><br>담임: 우대권 목사<br>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br>주일학교 오후 1:30분<br>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br>T. (213) 291-5901 / (714) 833-2568   | <b>영생장로교회</b><br>담임: 김혜성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br>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br>3부예배 오전 11:30<br>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br>T. (323) 732-7356 / C. (818) 993-3574  | <b>월서크리스천교회</b><br>담임: 염규서 목사<br>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br>2부EM(목)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br>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br>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br>T. (213) 384-4272  | <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br>담임: 남성수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br>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br>3부 찬양 오전 11:15 찬양기도회 오전 5:30(월-토)<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br>T. (714) 893-1652 / www.kccroc.com          |
| <b>요셉선교교회</b><br>담임: 정상호 목사<br>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br>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br>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br>T. (213) 245-4090  | <b>은혜한인교회</b><br>담임: 한기홍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br>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br>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br>T. (714) 446-6200 / F. (714) 446-6207   | <b>인랜드교회</b><br>담임: 박신철 목사<br>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br>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br>(토) 오전 6:00<br>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br>T. (909) 622-2324, F. (909) 622-1480  | <b>임마누엘선교교회</b><br>담임: 류종길 목사<br>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br>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br>오전 7:30(토)<br>1818 S. Western Ave., suite 200, LA, CA 90006<br>T. (323) 766-9922  |
| <b>주님세운교회</b><br>담임: 박상규 목사<br>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br>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20<br>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br>T. (310) 325-4020 / F. (310) 325-4025  | <b>주님의영광교회</b><br>담임: 신승훈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br>2부예배 오전 10:20 수요일예배 오후 7:30<br>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br>T. (213) 749-4500 / F. (213) 749-6700  | <b>주님찬양교회</b><br>담임: 장준근 목사<br>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br>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br>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br>T. (310) 940-1646 / F. (714) 397-2875  | <b>청운교회</b><br>담임: 이명수 목사<br>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br>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br>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br>4465 Melrose Ave., LA, CA 90029<br>T. (323) 667-9920  |
| <b>충현선교교회</b><br>담임: 민종기 목사<br>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br>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br>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br>T. (818) 549-9191  | <b>코너스톤교회</b><br>담임: 이종용 목사<br>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br>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br>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br>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b>파사데나장로교회</b><br>담임: 성경경 목사<br>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br>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br>한글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수요일예배 오후 7:45<br>점오 12:30(분) 금요일예배 오후 8:00<br>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br>T. (626) 795-6252 / F. (626) 584-6544                               | <b>SAM care international</b><br>대표: 박세록 장로<br>'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br>치료하고 치유하는 성령의 사람들' 미지<br>www.samcare.org<br>1309W.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 92833<br>T. (213) 447-8169 / F. (213) 381-1506                                   |



### 성경의 가난한 자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가난”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성경은 “부는 좋고 가난은 나쁘다”고 단호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복으로서의 부가 있는가 하면, 착취와 도적질로 말미암은 부가 있음을 말합니다.

아울러 가난도 계름과 타락으로 말미암은 가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깊은 유익을 끼치는 가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영적인 유익을 위한 가난, 즉 영적인 추구를 위하여 재물을 얻기를 절제하는 것을 나쁘다 여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세례요한이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하여 물질을 생산하는 일을 절제하였으며,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전도자가 되었던 “자발적인 가난”을 택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가난은 구조적인 부정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의로운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일년에 3번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글라데시에 가난이 만연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과 돌에 석유를 파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종역의 75퍼센트가 미국의 석유개발업자에게로 돌아가고 다만 3퍼센트 이하의 돈이 일반의 국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석유개발 이전보다 더욱 실업이 늘어난 것은 구조적인 부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세계에 널리 퍼진 가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가난한 민중의 힘을 모아 경제적 정치적 혁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랑을 돌아보고 병을 고쳐주며, 그들을 이끌어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메시아의 표지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었습니 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시 41:1)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복만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이 피로운 시절에는 더구나 하나님의 고령 받은 자녀들을 삼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4가지 복이 있으리라 고 단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이 있다고 하시듯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재왕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며,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 아웃렛(Outlet)을 찾는 사람들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제는 최첨단 과학장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넷북(Netbook), 이북(E-book), 아이 패드(I Pad), 그리고 4G-스마트 폰 등등 수많은 고성능 장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홍수를 이루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 이들 첨단 장비들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중독”의 단계에 접어들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신이 되어버린 전자 제품들을 손에 쥐고 조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원”(Power Source)입니다. 아직 건전지(Battery)의 용량과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충전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최첨단 장비라고 해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맙니다. 자연히 공황이나 커피쇼 같은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력”(Power)을 얻을 수 있는 “아웃렛” 주변의 자리에 웅기웅기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새 가정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경위를 물었더니 힘들고 어려운 이만생활 속에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에 왔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주일 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활력소를 얻는다고 합니다. 특히, 저에게 “설교를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바탕 “울고, 웃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짐하면서” 그들은 삶의 새 힘을 충전한다고 합니다. 당당한 주문 사항에 다소 당황스럽고 부답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현명한 요구”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 가면 손 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필요

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삶의 “전력” 얻을 수 있는 “아웃렛”(Outlet)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고 모든 과정들이 “전력 충전의 과정들”입니다. 예배 후 사람들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고, 염려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삶을 힘있게 움직이는 에너지들입니다. 매주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게 되면, 별의 별 모습의 사람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냥 은혜로운 얼굴로 열심히 듣는 사람, 한 마디 한마디를 들 때마다 뉘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대입해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은 거대한 충전소를 만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교회에 타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사랑을 충전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아웃렛’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일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실재없는 인생이 축복된 삶일까요? 고난 없는 인생이 평탄하고 복 받은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과 자주 다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같은 수준으로 놀아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선생님들 말씀이 장난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 같더라는 겁니다. 설마 설마 하며 지켜봤더니, 정말 대학생이 초등학생과 똑같은 수준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이 조금 모자람인가? 성격 장애가 있는가? 생각해보니, 이 학

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흔히 남자들이 경멸하는 다들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조정하고 화해하고 인간관계의 방법과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도 다 필요한 거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다투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서로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갈등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고 화해하면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겁니다. 실재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단련하고 인격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 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많습니 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애에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많습니 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형들에게 배신감에 떨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에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억울함에 눈물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거였구나.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 나를 보내셨구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조정해서 요셉을 팔도록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움직여서 요셉을 감옥에 넣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런 약 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이끄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심지어 지하감옥에서조차도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 시간을 보내며 지낼 수 없었습니다. 삶의 고난이 자신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 다. 더욱 적극적으로 오늘에 해당하는 일들에 충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여러분의 크리스천다움을, 신앙의 여유와 품위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정된 승리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 이 세대는 믿음이 있는 세대인가?



조주호 목사  
리폼스대학교 대학원 총장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현실을 다스리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엡4:13)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에도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인간의 본분을 잃어 버리게 하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존귀한 삶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사탄의 교묘한 술수는 인간의 머리로 이겨내기 힘든 환경으로 끌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속죄와 구속의 사랑을 누리는데 성도들의 신앙의 힘을 다시 얻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축복의 삶을 침해하는 죄를 이기는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전진의 길을 열어주는 방패를 들고 멈추지 않는 의로운 길을 향해 전진과 변영의 새날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질병에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을뿐 아니라 사회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

음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복을 누리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하는 여인의 곁을 지나가시면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삶속에 불행이라는 처지를 생각한다면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의 현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처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예수께 달려가자 예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다” 하였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주는 삶의 변화는 눈을 뜨고 보는 기쁨은 물론 남에게 의존된 삶을 살아가던 소경이 눈을 뜨고 밝고 새로운 삶은 물론 스스로 살아가는 자존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속에 선한 일을 위한 수많은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 한다는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초진 무료! T213-380-0853**



# [새벽강단51]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는 예배자



용 장 영  
큰사랑장로교회 목사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인들은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망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도 예배를 드리는 자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목회는 사역의 기능이다. 잘못하다가 본질인 예배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먼저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 먼저 제사장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 목사는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필요하다. 기도 가운데 성결회복이 필요하다. 대각성 운동이다. 지금 사회에 개인이나 가정에 사회의 부조리가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목회자부터 내 문제라고 붙들어야 한다"며 "저들의 책임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양육했기에 그런 것이다. 요사처럼 조상의 죄가 아니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 첫째는 먼저 믿는 자들이 성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목회자부터 성결회복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예배 말씀 요약.

### <본문: 레위기8장>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참된 관계를 이루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롬12장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8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입니다. 임의대로 인간의 생각대로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가정 지역 민족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려 드리는 자입니다.

사도 바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벤전2장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너무도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처럼 모세뿐 아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몸을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 옷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과 그 후손들이 자기 스스로 씻지 않고 모세가 씻겨주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동생인데 하나님이 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때는 혈액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데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씻김을 받는 예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요한에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말 합니다. 만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거룩한 옷을 입히게 하십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옷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옷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디자인하고 다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짜라고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만 옷을 아름답게 디자인 하신 분이 없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제단사는 하나님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도 이스라엘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도 그 방법을 다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

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 옷 중에 최고의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는 옷은 가죽옷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내 옷 입고 내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되고 직분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신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십니다. 이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벤전 2장9절에도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많은 사람 중에서도 구별시키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도록 위임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을 7일간을 합니

다. 제사를 7일간 계속 반복해서 드리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거룩한 사역을 직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란 것입니다. 남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는 이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선 먼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7일간 철저하게 헌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몸에 익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일간 드렸으니 얼마나 열심으로 드렸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너무도 귀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지 않습니다. 분회편은 우리는 '너무 값진 은혜를 너무도 값싼 은혜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에 하나님께 헌신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제 나의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내 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공적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값으로 산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직임이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구별시키시고 7일간 반복해서 제사 드리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 SAM Care 영양치료식품, 보급 시작

### RUTF(영양치료식품) 제품 완성돼

#### -급박한 현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는 100만 명의 5세 이하 어린이들이 한 달 이내에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WHO에서 규정한 Negative 3 Zone 상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국가가 북한이라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 심각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인지 현황을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현실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는 강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하면서 그 심각성의 절박함을 피부로 직접 느낍니다.

UN에서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긴급성을 인정하고 세계소아과학회와 함께 특별영양치료

식품(RUTF)을 고안하고, 현재 국경없는의사회(1992년 노벨평화상 수상)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주 항공사들이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 간단하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들을 취할 수 있는 제품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 제품의 주원료는 팥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팥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팥은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라 곰팡이(Aflatoxin)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SAM Care에서는 지난 2년 간 중국 단둥에다 식품공장을 건설하고 실험에 실험을 반복하면서 우리 자체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도 간단한 수작업으로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우리 SAM Care International(EM)에서 설립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였습니다.

#### -북한 내에서 치료를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SAM Care International (EM) 의료팀이 실제 제품을 들고 북한 시골마을에 들어가 의료봉사와 함께 70명 가량의 심각한 어린이들을 3개월 연달아 치료하고 그 중 67명이 평균 3-5kg의 몸무게가 늘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 굴지의 식품회사 (주)농심에서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농심에서 R&D 팀이 구성되었고, 팥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쌀과 콩으로 주원료를 바꾸고, 기존의 제품보다도 더 맛있고, 칼로리도 더 높고, 더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여 제품특허를 획득하고 드디어 SAM Care RUTF(특별영양식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뚝은 죽의 형태로 만들어져, 극심한 굶주림으로 삼키는 능력이 모자라는 아이들도 죽처럼 넘길 수 있으며, 고농도의 오일상태로 실온에서도 한 달간은 변질되지 않고, 수질이 불량한 곳에서도 물의 혼합 없이 직접 먹일 수 있는 영양치료제입니다.

원래는 (주)농심 청도 공장에서 제조하려 계획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우량팥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최우수한 재료들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복되는 실험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Made in Korea) 모든 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최고의 재료들을 구입하여 만들어 되었습니다.

#### -최고의 품질, 최고의 효능, SAM Care RUTF 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특별영양치료식품을 생미 보급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 살립니다.

한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루 3번 3개월의 복용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라도 간단한 훈련을 받으면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재료 가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하루에 1봉50전, (3개월에 135봉)이면 한 어린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공급될 것이지만, (주)농심의 대형적인 공장

요구되는 양의 제품은 제한 없이 짧은 시일 내에 제조될 수 있습니다. 북한 이외에도 굶어 죽어 가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세계 어느 곳든지 원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의 주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SAMcare 국제대표 박세록  
연락처 SAM Care USA : 213-381-1347  
SAM Care International : 714-515-5433

# Solution for Tomorrow



www.laservisionworld.com



Laservision World는 20년간 쌓은 전문 음향, 영상, 조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Yamaha, Sony, Sanyo, Digico, Barco, EAW, JBL, Da-Lite, Martin, Robe 등 200여 개의 공식 딜러십 보유 및 장비판매를 하고 있으며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월 실무 세미나를 실시 하고 있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 해 주십시오.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레이저비전의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Customized Solution

지금 건축을 계획 또는 진행하시고 계시다면 멀티미디어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오랜 경험과 실력의 저희 Laservision World를 만나 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환경과 필요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예산에 맞는 Customized solution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의 경험과 우수성이 여러분의 멀티미디어 활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털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가 제공해 드리는 또 다른 서비스

- Pro Audio / Video / Lighting Online Store : [www.avlgear.com](http://www.avlgear.com)
- 우리들의 문화 네트워크 Culture and Event Network : [www.wori.com](http://www.wori.com)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v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D/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잠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해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속성과정 학생모집 (학식,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을 문제로 답답한 가슴!!!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찻삼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10'x10')(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마켓용 Gondolas

청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했던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금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들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땀**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싱크대, 욕조, 반기 등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로 교체  
▶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번비루,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LIC # 531243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세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제작(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은들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강시골 촌놈, 오지에 하나님 성전 짓는 일군으로

## [평신도 선교 시대] 이흥주 장로의 이야기

충남 예산 강시골에 살던 소년은 그날 파란 눈에 코 큰 예수쟁이들을 처음 만났다. 난생 처음 보는 외국인도 외국인이었지만 그들이 가져 온 헬기는 더욱 놀라웠다. 그 헬기는 건축 자재를 날랐고 소년과 소년의 가족들은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자재를 날랐다. 그리고 교회란 건물이 세워졌다. 그곳에 감리교단 소속 웨슬레구락부라는 건물이 붙었다.

모태에서부터 복음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이흥주 장로는 미국으로 이민 와 이제 수십년 전 자신과 같지도 모를 어린이들을 위해 오지에 교회를 짓는 평신도가 됐다.

"제가 지금 평생 갖고 있는 신앙을 회고해 보면, 결국 어릴 때에 어머니로부터, 교회로부터, 형님, 누님으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제일 큼니다. 지금은 사회 생활을 하는 장로서 거친 세상의 풍파와 싸우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각종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제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과 형님, 누님들과 주보를 등사하던 그때의 신앙이 기초가 됐죠."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신앙이 바로 모태에서, 어릴 적 형성됐다고 고백하는 이 장로는 "결국 못 먹고 못 살 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랐다"며 현재를 반성하기도 한다. 숨가쁜 이민생활 속에 그가 선교에 눈을 뜬 것은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교회 건축의 사건을 회고하면서부터다.

"강시골의 이 촌놈이 복음을 배웠

던 곳은 바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워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그만 교회에 저를 불러 주셔서 제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에 관해 배웠죠. 체계는 과거가 됐지만 이런 일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일부 국가들, 산간오지에는 앉아서 예배드릴 교회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해준 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사랑을 되돌려 오지에 교회를 지어 준다면 그 교회에서

### "받은 사랑 돌려 주는 것 뿐" 성전 건축, 신학생 후원 등 다양한 사역

복음을 배우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또 그 나라와 전세계를 복음화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의 교회 건축이 시작됐다. 받았으니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향에 교회를 지어준 미국인 선교사들처럼 산간 오지에 교회를 짓는다. "평생에 하나라도 짓고 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97년부터 지금까지 C국, 칠레, 키르키스탄, 우크라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11개를 지었다. 그가 시골을 고집하는 이유는 가난한 국가들의 가장 소외된 계층은 바로 시골에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이

다. 그곳의 코흘리개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가 선교와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비행기 타고, 차로 갈아 타고, 배걸로까지 들어가야 하는 오지는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에 더욱 교회의 필요성이 크기도 하다.

그는 "미주 한인들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다"고 말한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달려들 갖고 동남아 오지에 교회를 짓고 선



젬텍의 대표이면서 성바울선교교회 장로인 이흥주 장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선교회의 회장 조주태 장로가 미주에 와서 선교보고를 하던 중 그 사랑에 전염된 이가 바로 이흥주 장로다. 그게 1997년 일이다. 한국베트남선교회가 지금까지 100개 교회를 건설했고 미주베트남선교회가 11개 교회를 건설했다. 10분의 1 정도를 미

주에서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일단 현지에서 베트남선교교회 건축 요청이 들어오면 공산당이 인정하는 정식 종교부처를 위주로 성장 부흥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어차피 공산정권 하에서 일반 대지를 종교부처로 허용해 주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교

부지이되 교회 기능을 못하는 곳을 먼저 물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이 정해지면 자재와 물질을 제공한다. 건축은 현지의 건축전문가의 지도 아래 성도들이 다 함께 짓는다. 이 장로가 어릴 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과 선교 정신, 자립 의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야 지원이 시작된다. 낙후된 지역에 있던 교회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새 건물로 멋있게 지어지니 신기함에 그 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현재 이 장로는 미주베트남선교회의 회장으로서 신학생 후원을 하고 있다. 공산정권 속에 25년간 폐쇄됐던 신학교가 최근 다시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 그는 12명의 학생을 후원한다. 그들의 사진과 이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4백불이면 그들이 한 학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50불만 더 보태면 책까지 다 사 줄 수 있지요." 그가 후원하던 한 신학생은 목사인 남편과 함께 현재 한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이주 노동자 선교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뿌린 작은 사랑들이 열매 맺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장로는 1989년부터 젬텍(Gem Tech)이라는 보석사를 운영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의 헤드쿼터를 중심으로, 한인타운 내 2곳에 설립돼 있으며 사후도 "꿈을 가진 기업, 선교하는 기업"이다.

이인규 기자

## "취업과 진학" 무료 상담은 저에게



미국 이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손에 꼽을 수 없이 많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취업"이다. 타운 안의 이민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

지 직업 가운데 소위 전문직으로 꼽을만한 것들은 모두 특정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하다. 전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

### 상담가 플라워 박 "누군가 돕는 건 큰 기쁨"

떤 학교로 진학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무료로 상담해 주는 상담 센터가 설립됐다. 플라워 박 씨는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서 한인 유학생, 청년들에게 취업 상담이 그들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분야에서 2년간 일하며 노하우를 쌓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박 씨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를 결정했다. 그들은 현재 병원 어시스턴트, 약사 어시스턴트, 비즈니스 경영 가이드, 회계사무직, 차기공사, 간호사 등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박 씨는 상담 시 두 가지를 당부한다. "잘못된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점이다. "어떤 직업이 좋냐?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까? 어떤 직업이 쉽냐?" 등 잘못된 질문에는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다. 직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는 것도 그녀의 일이다.

또 하나는 "너무 늦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체류 신분이 아예 만료되어 버려 학교 선택에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스스로 이곳저곳을 모두 다녀 보느라 시간을 버리지 말고 일단 상담해 보라 것이다. 무료 상담일 뿐 아니라 누군가와 자신의 진로를 대화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무료 상담을 고집하는 이유도 크리스천으로서 누군가 도울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다. "웃음치료요법"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그녀는 "즐겁게 웃고 울며 상담하다 보면 많은 한인들이 진로와 교육, 취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문의) 213-434-8128  
flowerp88@hotmail.com

## 최악의 도시에서 하루에 403명 회심

### 센트럴크리스천교회 "희망없는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도박과 향락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최악의 도시로 기억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의 한 대형교회 집회에서 4백여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교회는 저드 윌라이트 목사가 시무하는 센트럴크리스천교회다. 라스베가스 지역에 4개 캠퍼스를 가진 1만9천명 규모의 대형교회다. 이 교회는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삶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When Life Leaves You In Pieces)라는 윌라이트 목사의 저서를 놓고 공부하던 중이었다.

사건은 15일에 일어났다. 뜨거운 예배가 끝난 후, 삶의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영상으로 방송됐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자리를 버치고 일어나라"는 도전적인 설교에 이어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으려는 사람들이 한명 두명 일어서기 시작했다.

곧 403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미국에서 가장

세속적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곧 세례를 받은 후 젖은 옷을 벗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새 옷으로 갈아 입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올해 들어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2천명이다.

이 교회의 성도들의 범위는 참으로 광범위하다. 시끄러운 오토바이족부터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다. 물론 세련된 옷차림으로 말쑥하게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많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아니라 직업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윌라이트 목사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흘러 버리지 않고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교회를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rescue)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희망을 잃은 도시에서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AT&T, VERIZON 가정용 전화 완전 대체!**

30일 환불 보장!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최대 \$100 돌려요!**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왜 아이토크비비 인가?**

- 저렴한 통화요금
- 무제한 통화
- 다양한 부가 서비스 무료!
- 친절하고 편리한 한국어 고객 서비스
- 100%고객 만족을 위한 30일 환불 보장 제도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24.99/월

미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기타 수수료 일체 포함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파트너 신규 아이토크비비 추가회선자 관심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544**

\*세고백 보상제도-1년 계약 플랜 가입자에 한함입니다. 계약기간내에 서비스를 예약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 및 보상 받으신 총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고객 보상금에는 아이토크비비 가입하신 플랜에 따라 최대 \$100까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은 기존 현행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환불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안번호를 사용할 경우 사용까지 없을 경우, 요금외 장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보상 제도의 최종 해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 Inc. 에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예약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월별(\$29.99)가 부과됩니다. 국제간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로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장구서 대신 안면하고 간편한 온라인 카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2011 Equus**  
**\$739** + tax  
T.D.O \$2,999  
O.A.C 3YR/36K (STK#041922)



**2012 Genesis**  
**\$399** + tax  
T.D.O \$3,499  
O.A.C 3YR/36K (STK#167271)



에쿠스, 제네시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에쿠스 리무진으로 달려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2012 Accent**  
**\$169** + tax  
T.D.O \$1,699  
O.A.C 3YR/36K (STK#116397)



**2012 Veloster**  
**\$179** + tax  
T.D.O \$1,999  
O.A.C 3YR/36K (STK#022103)

HYUNDAI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 이자율 2.49%**

다른 딜러나 은행에서 용자 거절 되신 분 일정한 비용만 내시면 100% 용자해드립니다. 문의: 제니 김

'10 DODGE AVENGER SXT	(P108045/108045)	\$16,888
'10 VOLKSWAGEN NEW BEETLE	(P008693/008693)	\$16,908
'08 TOYOTA CAMRY LE	(142262A/045338)	\$17,888
'08 HONDA ACCORD	(033780A/098353)	\$17,936
'10 VOLKSWAGEN JETTA S	(P082563/082563)	\$18,888
'11 HYUNDAI SONATA GLS	(P049785/049785)	\$18,888
'11 CHEVROLET MALIBU	(P100296/100296)	\$18,964
'10 CHRYSLER SEBRING TOUR	(P123861/123861)	\$18,998
'08 CHEVROLET SILVERADO LT	(259499A/140734)	\$19,963
'11 KIA SORENTO LX	(P001565/001565)	\$19,987
'10 HYUNDAI SANTA FE GLS	(P336562/336562)	\$20,888
'09 HYUNDAI GENESIS 3.8L	(P021782/021782)	\$24,941

'09 HYUNDAI ACCENT GLS	CERTIFIED (U373093)	\$11,299
'10 HYUNDAI ACCENT GLS	CERTIFIED, SILVER, 4DR (U419990)	\$11,399
'03 TOYOTA AVALON SDN XL	4DR, BUCKET SEATS (U281813)	\$11,549
'09 KIA SPECTRA	(5658962)	\$11,899
'10 HYUNDAI ACCENT 2 DCP	CERTIFIED, SILVER (U169045)	\$12,999
'10 KIA RIO	(6687779)	\$13,302
'08 HYUNDAI ELANTRA GLS	CERTIFIED, SUNROOF (80370153)	\$13,499
'09 HYUNDAI ELANTRA SDN	CERTIFIED, 4 DR, AUTO GLS S (U720008)	\$14,789
'08 SCION tC	(80262589)	\$14,899
'10 KIA FORTE	LOW MILES (5129865)	\$15,789
'08 HONDA FIT 5 DR. NB	AUTO SPORT PURP (S014919)	\$15,899
'10 HYUNDAI ELANTRA GLS	CERTIFIED, SILVER (U835311)	\$15,995

상기 모든 모델은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진심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 ~ 9:00pm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월-금 7:30am ~ 6:00pm  
▶ 토 8:00am ~ 2:00pm

남녀 영업사원 모집 문의: 찰리정메니저 한국인 상담 제니 김

\*\*\*서비스는 친절함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Zoom-Zoom

전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형 2011 MAZDA 3**

**\$187** + TAX  
Stock No. 490055

스페셜 **0%**

T.D.O, \$2,599  
48month, 12K mile/yr O.A.C, with your 1st payment and license fee plus offer ends close of 11/31/11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한국인 상담 제니 김 (310)749-7599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

**2011 MAZDA 5**  
편리한 미니밴

**2011 CX-7**  
실용적인 SUV

스페셜 **0%**

**2011 CX-9**  
럭셔리 SUV

스페셜 **0%**

**2011 MIATA**  
여름 정취를 스포츠카